



9월 4주차 |

# 주간 인도네시아

## 시장 동향 및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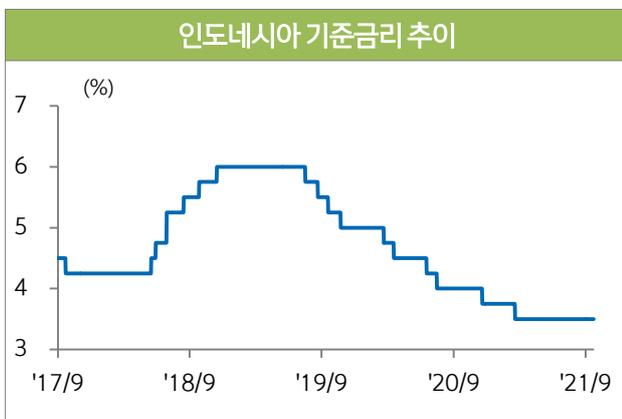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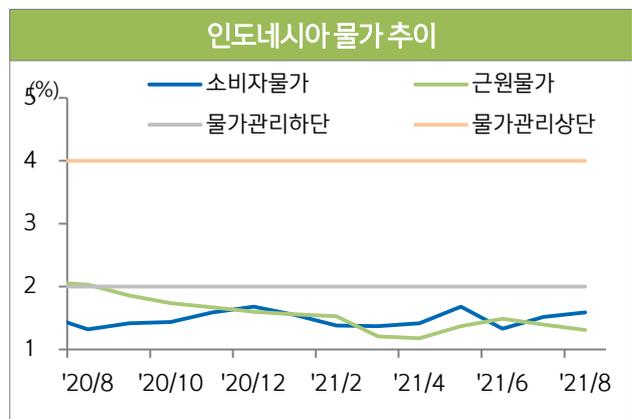
##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다시 한번 동결하여 경기 부양 지원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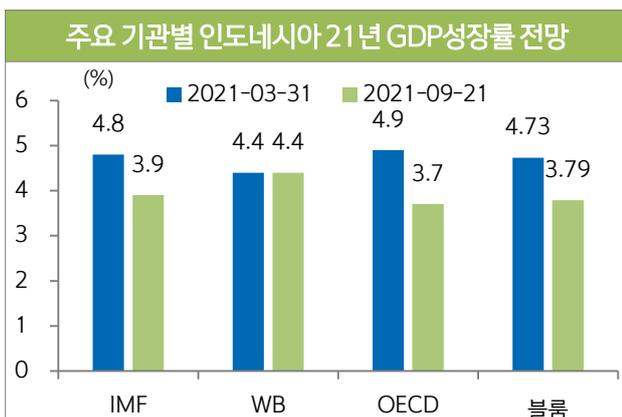
-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9/21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7개월 연속 동결**. 8월말부터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인한 확진자수 증가가 제한되면서 9월들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폭 완화하는 등 경제활동을 정상화 조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앙은행도 경기 부양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음
- ▶ 인도네시아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대비 1.59%로 전월의 1.52% 대비 상승하였으나, 근원소비자물가는 전월의 1.4%보다 하락한 1.31%를 기록하여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중앙은행과 정부의 소비자 물가 관리 목표인 2~4%를 지속 하회.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한 소비심리 부진에 따라 수요가 살아나지 못 하면서 물가가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낮은 물가 수준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경기 부양을 지속하는데 있어 부담을 낮춰주고 있는 상황임
- ▶ 9월 FOMC 에서 연준위원들은 미국 경제의 진전에 힘입어 곧(Soon) 자산매입 규모를 정상화하는 테이퍼링을 실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시장에서는 빠르면 11월 테이퍼링을 발표하고 내년 여름~가을까지 테이퍼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임**.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이 완료되는 시점이 기준금리 인상의 시작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9월 FOMC에서 발표된 연준위원들의 점도표 예상에서 2022년 1회 이상 인상을 전망하는 위원이 9명, 동결을 전망하는 위원이 9명으로 **빠르면 2022년말 이전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글로벌 주요기관들이 인도네시아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3%대로 하향 조정하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준의 긴축 스탠스 전환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점차 높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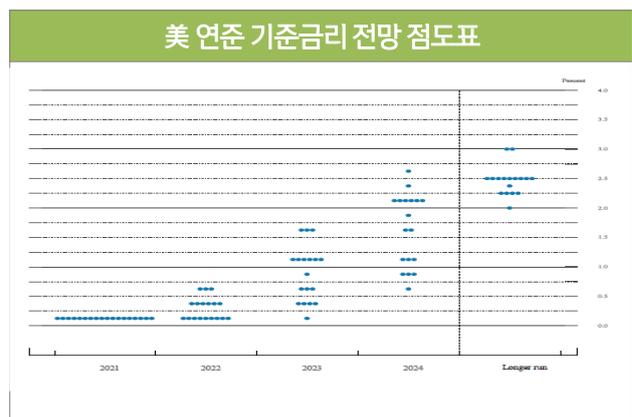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 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9.24	9.17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VN	1,351.17	1,352.64	↓ -0.11	↑ 22.40	903.98 '20/09/29	1,420.27 '21/07/02
인니	자카르타종합	6,144.82	6,133.25	↑ 0.19	↑ 2.77	4,842.76 '20/09/24	6,435.21 '21/01/13
인도	SENSEX	60,048.47	59,015.89	↑ 1.75	↑ 25.75	36,553.60 '20/09/24	60,048.47 '21/09/24
중국	상해종합	3,613.07	3,613.97	↓ -0.02	↑ 4.03	3,217.54 '20/09/28	3,715.37 '21/09/13
	심천종합	2,434.23	2,446.05	↓ -0.48	↑ 4.50	2,126.88 '20/09/28	2,503.85 '21/07/22
홍콩	H	8,604.99	8,940.47	↓ -3.75	↓ -19.87	8,604.99 '21/09/24	12,228.63 '21/02/17
	항셱	24,192.16	24,920.76	↓ -2.92	↓ -11.16	23,235.42 '20/09/25	31,084.94 '21/02/17
한국	KOSPI	3,125.24	3,140.51	↓ -0.49	↑ 8.76	2,267.15 '20/10/30	3,305.21 '21/07/06



##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9.24	9.17	전주대비(bp)	전년말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2.15	2.14	↑ 0.90	↓ -43.00	2.07 '21/09/15	2.85 '20/09/24
인도네시아	6.16	6.14	↑ 1.60	↑ 27.10	5.89 '20/12/30	6.96 '20/09/30
인도	6.18	6.17	↑ 1.40	↑ 31.60	5.82 '20/12/04	6.26 '21/08/27
중국	2.87	2.88	↓ -1.00	↓ -27.70	2.82 '21/08/06	3.36 '20/11/19
한국	2.16	2.07	↑ 8.50	↑ 43.50	1.43 '20/09/24	2.20 '21/06/02



##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구분	9.24	9.17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달러-동 (VND)	22,770.00	22,769.00	↑ 0.00	↓ -1.42	22,752.00 '21/09/08	23,206.00 '20/10/06
달러-루피아 (IDR)	14,258.00	14,223.00	↑ 0.25	↑ 1.48	13,895.00 '21/01/04	14,900.00 '20/09/28
달러-루피 (INR)	73.69	73.48	↑ 0.28	↑ 0.85	72.33 '21/02/24	75.46 '21/04/21
달러-위안 (CNY)	6.47	6.47	↑ 0.00	↓ -0.93	6.37 '21/05/28	6.83 '20/09/24
달러-원 (KRW)	1,176.67	1,175.46	↑ 0.10	↑ 8.30	1,081.81 '20/12/04	1,187.08 '21/09/20

# 주요 뉴스





## 아시아 개발은행, 인도네시아 2021년 GDP 성장률 전망치 3.5%로 하향



### ❖ 요약 및 시사점

아시아 개발은행은 3분기 대대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과 글로벌 전반적으로 델타변이로 인한 경제활동 부진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 2021년 성장률 전망을 3.5%로 하향 조정하였음

-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인도네시아의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5%에서 3.5%로 하향 조정하였음. 회복이 지속되기는 하지만 회복 속도는 둔화되는 것으로 본 것임. 여기에 2022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5%에서 4.8%로 하향 조정하였음.
- ▶ ADB가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게 된 것은 2분기에 기존 예상보다 부진한 7.07%의 전년대비 성장률을 기록한 것도 영향을 주었음. 2021년 3분기에 취해진 강력한 이동 제한 조치도 성장률 하향 조정의 이유가 되었음. 3분기 이동 제한 조치가 소매판매, 차량 판매, 소비자 신뢰, PMI 등의 부진으로 실제 나타났음. 성장률 전망을 하향한 3번째 요인은 코로나19 변이가 여러 나라에 걸쳐서 성장 둔화로 연결되었고, 글로벌 경제에 금융 부진, 서비스 부문에서의 위축 등으로 나타났음.
- ▶ ADB는 올해 인도네시아 물가상승률을 1.7%로 전망하여 기존 전망치의 2.4%보다 낮추었으며, 내년에 대해서도 기존 2.8%보다 낮은 2.7%로 수정하였음.
- ▶ 경상수지 적자는 올해 GDP대비 -0.5%로 전망하여서 기존의 -0.8%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내년에 대해서는 기존 -1.3%에서 -0.9%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성장률 전망은 낮춰졌지만 경상수지 적자는 개선되는 방향임.



## 기후 변화 논의로 인해서 아시아 지역 석탄 화력 프로젝트 취소 요구 압력



### ❖ 요약 및 시사점

11월 UN COP26 기후 협의회를 앞두고 환경 단체들과 환경 운동가들은 석탄화력 발전을 역사의 유물로 만들어버리기 위해 석탄 화력 발전 관련 신규 프로젝트들을 중단해야한다는 요구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석탄 산업 및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전환비용의 어려움 또한 존재함

- 6개 국가들이 전세계에서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프로젝트의 80%를 차지하는 가운데, 올해 11월 개최되는 COP26 UN 기후 협의회에서 '석탄 화력 발전을 역사의 유물로 만들자는 구호에 따라 이들 신규 프로젝트들을 취소하도록 합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이후로 전세계적으로 신규 석탄 화력 발전 추진 용량은 76%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44개 국가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싱크탱크인 E3G가 발표하였음.
-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도 아시아 지역은 전세계에서 석탄 화력 발전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으며, 이중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터키, 방글라데시 등 6개 국가들이 아직 건설이 진행되기 전인 계획된 석탄 화력 발전소 건립 계획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가장 환경 오염이 심한 화석연료인 석탄을 전력 생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끝내는 것은 기후 변화 시민 단체들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들은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이나 보증을 제공하는 것들을 빠르게 말려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빠르게 석탄 사용을 끝내는 것은 지구 온난화를 2°C 미만으로 잘 유지하고, 홍수, 폭풍, 산불, 농작물 피해 등 기후 위기를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온난화를 1.5°C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여겨지고 있음.
- 그러나 석탄은 아시아 지역에서 전력 생산용 자원으로써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세계 석탄 수요의 75% 가량이 아시아에서 나오는 것으로 IEA는 조사하였음. 석탄 유보가 많은 국가 또는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시스템을 가진 곳은 사용량 축소를 천천히 진행하고 있으며, 여전히 운영중인 플랜트나 광산 등을 포기하는 비용과 새로운 플랜트로 전환하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중국은 주요 신규 석탄 화력 에너지 사용에 대한 주요 자금줄인데,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석탄에 비해 태양광이나 풍력의 비용이 더 경쟁력이 있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를 지원하고 있음. 신재생에너지에 대비한 석탄의 경쟁력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E3G에서는 강조하고 있음.
- 중국 홀로 전세계 신규 석탄 화력 용량 증대의 53%를 차지하고 있는데, 파리 기후협약 이후로 74%나 줄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국의 비중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뒷면 계속)

- 세계 각국에서 더 가속화된 탄소배출 축소 계획들이 나오고 있고, COP26 협의회를 앞두고 탄소중립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금융 부문의 지원을 약속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의 국가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탄소중립과 관련한 흐름에 동참하면서, 신규 석탄 화력 프로젝트들을 승인하는 것을 중단하였지만, 기존에 계획해두었던 프로젝트나, 현재 건설중인 프로젝트는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는 방향을 잡고 있음. 새로 지어지는 화력 발전소들은 건설 및 운영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향후 수십년에 걸쳐서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환경 운동가들과 과학자들은 비판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에서는 이러한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것이 아시아 지역 곳곳의 가난한 지역 사회와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불평등을 높일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음. 인도네시아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동안 신규 일자리 수백만 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석탄을 생산하는 지역의 경제가 위협되고 관련된 산업에서의 수만의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임.
-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석탄 화력 발전용 석탄 수출 국가이며, 현재 60%의 에너지가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임. 석탄, 석유를 2060년까지 사용하지 않기로 한 계획에 따라 85%의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임





## 인도네시아, 우주 산업 관련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기회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국가 연구 혁신 위원회(BRIN)은 적도 지역에서 위성을 발사할 경우 연료 소모가 적고 오랜기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가 발사센터를 건립하고 민간 및 다른 국가들에게 위성발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합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발표

- 인도네시아 국가 연구 및 혁신 위원회(BRIN)은 로켓 발사 등과 같은 우주 관련 산업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있어서 대규모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음. 인도네시아는 적도 근처에 위치한 지형을 잘 활용하여서, 위성 발사를 위한 최적의 발사센터를 설립하기에 좋은 환경에 있다는 판단임. 이를 위해서 인도네시아는 우주탐사선 발사를 위한 발사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 하였음. 단순히 인도네시아 국적의 위성을 발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 및 다른 국가 소유의 위성과 탐사선들을 쏘아보내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러한 발사센터를 건립하는 것과 별도로 인도네시아는 자체적인 우주 탐사선을 빠르게 개발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개발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우주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BRIN은 요청하였음. 점차 나노, 마이크로 수준의 소규모 위성들이 다양한 목적에 맞춰 무인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관련 기술을 습득하고 발사체를 쏘아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 인도네시아에서 발사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후보로 제시되고 있는 곳은 North Maluku 지역의 Morotai섬 지역이나, Papua 지역의 Biak섬 등으로 여러 측면을 검토한 결과 후보지로 제안되고 있음. 적도 지역이 위성 로켓을 발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다는 연구하에 적도 근처에 발사센터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 고려 사항이 되었음. Biak 적도 위성발사센터 타당성 연구에 따르면, 적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위성이 발사될수록 궤도가 휘어짐으로 인한 파워 소모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연구 결과 나타났음.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하고, 위성 발사체에 더 많은 연료 중량을 넣지 않기 위해서는 적도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임.



## 조코위 대통령, 전기차 배터리 공장 기공식 축사



### ❖ 요약 및 시사점

조코위대통령은 이번에 한국기업들이 투자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의 기공식에 참석하여 인도네시아가 향후 전기차배터리 및 전기차 생산 밸류체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기존의 니켈원광 수출대비 부가가치를 높여 경제구조를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축사하였음

- 조코위 대통령은 서부 자바 Karawang 지역에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시아 최초의 11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기공식에 대하여 축사를 남겼음. 대통령은 이번 전기차 배터리 공장의 건립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광산업에서 금속 제련,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생산까지의 일관화된 생산 체계를 가지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진지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내 경제 구조를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였음.
-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니켈 보유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니켈을 잘 활용한다면 향후 3~4년 이내에 인도네시아가 니켈에 기반한 리튬전지, 전기차배터리 등의 최대 생산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내비쳤음.
- 니켈을 단순히 원광석 형태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류 부문을 만들어 냄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료로 생산해내게 된다면 원광석에 비해서 6~7배 가량 가치가 높아진다고 대통령은 말하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기차 생산에까지 활용되게 된다면 원광석 대비 11배까지도 부가가치가 상승한다고 하였음.
- 이번에 세워지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은 PT.HKML Battery Indonesia가 운영을 하게 될 것임.



## 인도네시아 국내 게임 산업의 잠재성에 대해서 강조



MINISTRY OF TOURISM AND CREATIVE ECONOMY  
REPUBLIC OF INDONESIA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관광 및 창조경제부에서는 현재 인도네시아 게임 시장은 발전과정에 있으며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 따라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산 게임 중심으로 이뤄져있는 산업구도를 바꾸기 위해 국내 게임 개발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음

- 관광 및 창조경제부는 인도네시아의 국내 게임 산업이 큰 경제적 기회가 있으며, 향후 늘어나는 디지털 인프라에 힘입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음. 게임 개발은 인도네시아의 창조경제의 한 부분이며, 경제에서 이미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 코로나19 기간 동안 매출과 성과가 늘어났음.
- 창조경제 부문 가운데 TV, 라디오 등은 줄어든 반면, 게임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늘어났고, 특히 국내에서 개발된 게임들의 모멘텀이 상승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흥행한 게임들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창조경제부에서는 밝히고 있음.
- 인도네시아가 점차 디지털 게임 저변이 넓어지면서 개발에 대한 잠재력도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는 인도네시아 국내 게임들이 규모가 작고, 인도네시아에서 사용자들이 많은 시간을 플레이 하는 것은 해외 게임들임.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게임 시장은 대략 16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중 90%가 넘는 비중이 수입 게임이었음.
- 창조경제부에서는 디지털 인프라가 더 많이 확충되고,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서비스되면서, 다양한 정부의 게임산업 지원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음. 인도네시아 게임산업이 향후 수천억 달러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지만 현재처럼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가들이나 관심들이 인도네시아의 게임 개발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창조경제부에서는 전망하고있음

(출처 : Antara News)



## 8월 인도네시아의 재정적자규모는 383.2조 루피아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의 8월 재정적자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 및 연간 목표 진도율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자 지출은 지속되고 있으나 재정 수입이 경제 회복에 기반하여 개선되면서 재정적자 조달 규모도 줄어들었음

- 재무장관에 따르면, 8월 인도네시아의 재정적자규모는 383.2조 루피아로 GDP대비 2.32%인 것으로 나타났음. 2021년 재정적자 목표치는 GDP대비 5.7%로 이보다는 낮은 진도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 지난해 같은 기간 재정적자에 비해서도 23.9%가 줄어든 수치임.
- 재무장관은 재정적자의 전년대비 이러한 감소가 경제 회복에 따른 세수 개선과 강력한 재정 관리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음. 인도네시아 정부가 행하고 있는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정책이 경제 회복에 적절히 사용되고 있다는 입장임.
- 재정 수입은 1,177.6조 루피아로 연간 목표 1,743.6조 루피아 대비 6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741.3조 루피아가 세수수입, 158조 루피아가 관세수입, 277.7조 루피아가 세외수입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재정 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9% 증가한 수치임
- 재정 지출은 1,560.8조 루피아를 기록하여서 연간 2,750조 루피아 대비 56.8%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5% 지출이 증가한 수준임.
- 재정 적자에 따른 부채 조달은 528.9조 루피아로 연간 전체 목표 1,006.4조 루피아의 52.6%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0.6% 줄어든 수치임



## 경제금융연구소, G20 의장국 지명이 투자유치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는 올해 12월부터 2022년 G20의 의장국을 맡게 되는데, 코로나19를 잘 관리하고 내년 포럼을 잘 치뤄낼 수 있다면 국가 위상을 높이고 회원국들로부터 투자 및 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가 2022년 G20 의장국으로 지명된 것이 인도네시아로의 외국인 직접 투자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도네시아 경제 금융 연구소가 전망하였음. 그러나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가 내년에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G20 포럼을 코로나19 상황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치뤄내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서도 달았음.
- 의장국으로 성공적으로 달성한다면, G20 회원국들로부터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받거나,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망하였음. G20 의장국이 된다는 것은 인도네시아가 안정적인 경제를 운영하고,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함.
-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G20 의장국이 된다고 하더라도, G20 국민들이 모두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내년도에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관광산업에는 직접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1월까지 G20의 의장국을 맡게 되며, 2022년 G20의 주요 테마는 '함께 회복하고, 강하게 회복합시다(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er)'임.



## 산업부, 산업 경쟁력 증진을 위해 표준화 작업 지속



**Kementerian  
Perindustrian**  
REPUBLIK INDONESIA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기술 표준과, 제품 품질 테스트를 위한 표준 계측 절차 및 기술 요구 사항 등을 정리한 내용을 배포하고 공유함으로써 기술 및 인적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품질에 대한 신뢰를 높일수 있도록 표준번호 및 표준서의 적용을 늘리고 있음

-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산업부문 경쟁력 증진을 위해서 시장의 요구에 맞는 제품 품질 증진을 가져올 수 있는 표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산업부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술의 창조와 활용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음. 산업부는 산업 기술의 표준화와 최적화를 통해서 독립적이고, 국가적이고, 발전되고, 즉각적이면서 포용성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장관은 말하였음.
- 이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SNI : Indonesian National Standards) 번호 체계를 연구기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확장할 예정임. 산업 서비스 표준화 및 정책 위원회(BSKII)는 제조업 부문에서 소비자들이 제품 품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표준화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기업들의 표준 작업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음. 표준화를 통한 신뢰도 및 품질 증진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음
- 여기에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가이드스 2021 발표를 통해서 산업 현장의 인적 자원을 향상시키고, 제품과 기계를 테스트하는 표준 절차를 제시하며, 산업 현장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기로 하였음. 이러한 기술 표준화가 Making Indonesia 4.0 로드맵과도 방향을 같이하는 궤적임.

(출처 : Antara News)